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꽃을 응용한 도제 벽장식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주연

김 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꽃을 응용한 도제 벽장식 연구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이주연

꽃을 응용한 도제 벽장식 연구

김 시 만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 예 학 과

이 주 연

인 준 서

이주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주거시설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현대인을 위한 안식의 주체공간이다. 한국의 주거공간은 산업화에 들어서면서 아파트 (apartment)형식의 공동주택을 수용하였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현대인의 삶에 적화되어진 편리성과 기능성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나, 그 특성상 획일적이고 비개성적 공간양상을 띄게 되었다. 인간은 통계적으로 하루 중 30%이상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며, 이는 구성원의 인격형성 및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획일적이고 비개성적인 주거환경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소통의 제한은 물론 정서적 제한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현대인의 삶은 점차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되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현대인은 점차 자연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되었으며, 일상 가운데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레저 등에 관심을 가지며,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사회 전반에 걸쳐 자연을 통한 정서적 치유에 관심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현대예술의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써 예술은 실내환경과 직접 조화를 이루어 ‘예술을 통한 현대인들의 정서 치유’의 긍정적 의미로 새로운 목적을 지니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대예술은 실용적 구조만이 전부였던 주거공간 내 정서적 치유와 위안을 목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도제 벽장식으로 그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하는 작품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꽃은 자연의 상징소재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왔음을 이해하고, 꽃을 자연의 대표성을 갖는 소재로 설정하여 본 연구자의 정제된 조형사고를 토대로 도제 벽장식을

표현하고자 한다. 또한 문헌과 참고자료를 통한 꽃을 표현한 사례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를 회화적으로 의미있게 재구성하여 디자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작품의 형식으로는 공동주택단지의 제한된 생활공간에 조화될 수 있도록 액자형식을 채택하였으며, 석고캐스팅으로 복수제작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석고제형의 ‘원 몰드 원폼(one mold one form)’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간틀¹⁾기법을 이용하여 ‘원 몰드 멀티폼(one mold multi form)’²⁾ 제작을 시도하였다. 유색(釉色)은 백색과 청색 두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확장으로 의료시설(병원) 내벽에 가상설치를 계획하였다.

본 연구작품은 실용성을 앞세운 획일화된 아파트 공간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추후 복합 주거환경 또는 의료시설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기대해 본다.

이로써 복제된 듯 비개성적 공간에 예술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정서를 위안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간(間)틀 : 조립 가능한 별개의 몰드를 제작하여 base mold에 바꿔 끼워 캐스팅하는 방식이며, 본 논문에서의 명시는 ‘間(간)’ 자를 사용하여 ‘간틀’로 칭하였다.

2) 원 몰드 원폼, 원 몰드 멀티폼 (one mold one form, one mold multi form) 은 석고캐스팅의 제작원리를 명시하는 말 중 하나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명사로 사용한다.

one mold one form : 한 개의 몰드에서 한 개의 형태를 캐스팅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석고캐스팅 방법

one mold multi form : 한 개의 base mold에 간틀을 바꿔 조립하여 다양한 형태를 캐스팅 할 수 있는 석고캐스팅 방법

목 차

논문개요

목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3
II. 본론	
1. 예술과 정서적 위안	5
2. 꽃에 대한 고찰	7
1) 일반적 고찰	7
2) 역사적 고찰	8
3. 단순, 절제의 美	16
4. 연구작품	23
1) 제작의도	23
2) 제작과정	24
3) 연구작품	34
III. 결론	4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사진 목차

<사진1> 열선커터기	27
<사진2> 원형제작 - 1	27
<사진3> 원형제작 - 2	27
<사진4> 열선커터기를 이용한 원형 완성	28
<사진5> 원형을 이용한 간틀제작 - 1	28
<사진6> 원형을 이용한 간틀제작 - 2	28
<사진7> 원형을 이용한 간틀제작 - 3	29
<사진8> base mold 완성	29
<사진9> base mold에 간틀조합	29
<사진10> 슬립 주입	30
<사진11> 슬립 배출 시 공기주입	30
<사진12> 탈형 및 건조	30
<사진13> 병원내부 가상설치 시안	45

표 목차

<표 1> 월별 꽃과 그 의미	12
<표 2> 유약 조합비	31
<표 3> 소성방법	32
<표 4> 소성온도	32

참고도판 목차

<도1> 덕흥리 벽화무덤 연꽃공양도, 작자미상.....	20
<도2> 수덕사 대웅전벽화 야생화도, 작자미상.....	20
<도3> 어승이와 개구리, 신사임당.....	20
<도4> 불이선란, 김정희.....	20
<도5> 석류도, 작자미상.....	21
<도6> 화접도, 편우령화첩.....	21
<도7> 건물꼭대기의 꽃무늬 장식 : 세 개의 클로버문양, 작자미상.....	21
<도8> 꽃과 나비, 김호득.....	21
<도9> 꽃, 김호득.....	22
<도10> flower7, 박지민.....	22
<도11> 6월의 정원, 안혜영	22
<도12> 인도 꽃, 임하나	22

시작품 목차

[작품 1] Ludens 01 : 설렘	34
[작품 2] Ludens 02 : 화사(花絲)-1	35
[작품 3] Ludens 03 : 화사(花絲)-2	36
[작품 4] Ludens 04 : 반가운 손님-1	37
[작품 5] Ludens 05 : 반가운 손님-2	38
[작품 6] Ludens 06 : 스스로 그리하다-1.....	39
[작품 7] Ludens 07 : 스스로 그리하다-2.....	40
[작품 8] Ludens 08 : 스스로 그리하다-3.....	41
[작품 9] Ludens 09 : 스스로 그리하다-4.....	42
[작품10] Ludens 10 : 스스로 그리하다 cobalt-1.....	43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의 현대 주거공간 대부분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중심의 환경으로 구성되어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며 주택난의 대안으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건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간은 대부분 직육면체의 동일한 공간으로 구성된 새로운 주거형태를 받아들여야 했다.

새롭게 형성된 ‘주거공간’은 인간에게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며, 성장을 위한 삶 가운데 편리한 생활을 위한 실용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인간은 급속도로 변화된 사회로부터 첨단 기능을 갖춘 다양한 환경을 누리게 되었으나, 그 편리성 이면에 과학·기술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갈등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물리적 일변(一邊)으로 변화해 온 주거시설은 경제적 윤택함과 삶의 질을 걱정하는 시대요구에 부응으로부터 더욱 확장되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위안과 치유의 공간’으로 그 의미가 새롭게 요구되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꽃)을 매개로 기억속 잔재된 편린과의 공감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심미성과 정서적 위안의 목적을 지닌 개선된 주거환경을 제안하고자 한다.

꽃은 고금(古今)을 막론하고 인간의 삶 가운데 회로에락을 함께하며 다양한 의미로 존재해왔다. 본 논문은 연구자의 내재된 조형언어를 통해 꽃을 심상화하여 그 형상이 함축하고 있는 사유의 언어로 관람자의 공감을 얻고자 한다. 형상이 고유의 의미를 함축할 때, 그 깊이는 본래의 형상이 갖는 내용보다 몇 배 이상의 함축적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

작품은 현대 주거공간에 조화를 이루어 무표정. 무감각. 무감동의 공간을 사유가 담긴 공간으로 변화시켜 '정서적 위안과 감성의 치유'라는 새로운 목적을 제시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2. 연구방법

꽃은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존재해왔으며 형태, 향기, 서식지 등 다양한 생물학적 특성과 구전설화 등을 배경으로 인간의 삶을 빗대어 고유의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이는 당시 사람들의 사회·문화적 인식과 내면의 감정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지표가 될 정도로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이를 통해 과거 사람들의 지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선인들에게 꽃의 역할이 그들의 의식과 마음을 담는 매개체였던 것과 같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도 과거 그들과 같은 자신만의 기억과 의식, 스토리가 담긴 고유의 의미가 존재한다는 설정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의 삶 가운데 꽃이 함께해 온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1. 현대 주거환경 내 무의미하게 존재할 수 있는 벽공간 개선
2. 꽃이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 의미에 대한 이론적 정립
3. 자연 그대로의 꽃의 형상을 본 연구자의 의식 속 내재된 조형언어로 재해석
4. 단순과 절제의 미가 지닌 함축의 의미 고찰
5. 예술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적 위안 효과 예상
6. 의료시설을 비롯한 확장된 공간조화를 위한 예상시안 제작

이를 통해, 보이는 형상 이면에 내재하고 있는 함축적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얻어 질 수 있는 현대인의 정서적 위안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시작품 제작은 꽃이 내포하고 있는 고유의 의미와 형상들을 연구하여 이미지를 도출한 후 열선커터기를 이용하여 아이소핑크를 컷팅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정형화 되고 조직화되어 치밀하게 보일 수 있는 석고 작업에서 현대미술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유희(ludens)³⁾적 접근을 계획함으로써 관람자의 긴장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두었다.

또한 석고캐스팅에 있어서 one mold one form의 제한을 극복하고자 간틀을 제작하여 base mold와 간틀을 조합하며 다양한 형태를 캐스팅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자의 내면에 다양한 조형언어들을 효과적이고 집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의 주거공간에 새롭게 형상화 되어진 꽃이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그로인해 기대할 수 있는 공간 구성원의 기억 속 편린과의 공감을 바탕으로 도제벽장식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예술적 위안의 가능성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3) 유희(遊戱)하는 인간이라는 Home ludens에서 따온 말이다.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J.하위징아(1872~1945)가 제창한 개념으로,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유희에서의 문화의 기원, 1938>은 유희사상사(遊戱思想史)에서 한 시기를 구분지었다. 종래에는 유희가 문화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문화 쪽이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였으나 하위징아는 이러한 견해를 역전시켜서, 문화는 원초(原初)부터 유희되는 것이며 유희 속에서 유희로서 발달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J.하위징아는 그의 저서에서 ‘문명의 고대 단계에서 그리고 그 뒤 긴 세월동안 예술(기술)이라는 단어는 단지 창조적인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인간 손재주를 포함했다. 따라서 정신과 손으로 만들어 낸 모든 가치있는 걸작은 그 어떤 역작이든 예술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것들 모두에서 놀이(유희)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본 론

1. 예술과 정서적 위안

오랜 역사를 거쳐 오는 동안 인간은 자연 위에 집을 짓고, 헐고 다시 지으며 살아왔다. 한국은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화·산업화를 거치며 인구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과정에서 급팽창하였으며 이러한 성장의 대가로 교통난, 주택난 등 도시화문제들이 새롭게 발생되었다.

이에 현대건축은 기능주의적으로 치중하여 단순한 공간, 균일화 되고 획일적인 공간 등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공간으로 구성된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였으며⁴⁾, 이는 현재까지 대도시 공동주택의 바탕이 되고 있다.

공동주택단지의 대규모 조성으로 최초의 자연은 점차 시멘트로 가려졌으며, 이는 과거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아오던 환경과는 대조적이다. 따라서 근·현대를 지나며 급변을 겪어온 사회와 인간은 이제 다시 본연의 자연을 갈망하고 있다.

이로써 새롭게 형성되는 환경은 그동안 흠을 뒤덮고 있던 시멘트를 걷어내고 고층 공동주택단지 사이 넓은 공원과 숲을 조성하여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최초의 자연과 닮은 소 자연을 두고자하며, 점차 ‘자연으로의 환원’에 가치를 부여하는 추세이다. 또한 사회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새롭게 규정하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게 되었으며⁵⁾ 자연에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적 성향을 띄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과 미학에서 역시 나타나는데, 현대예술이 대비, 갈등,

4) 김정석, <<실내공간의 확장과 다면화를 위한 유리조형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3.

5)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래픽스, 2009, p87.

반(反) 등의 성향을 지닌 예술에서 자연·인간·예술의 화(和)를 모색하며 자연을 소재로 화해 및 융화를 추구하는 미학으로 새로운 길을 여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⁶⁾ 그 가운데 자연은 인간의 의식세계보다 오히려 무의식세계에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을 소재로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언어 속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⁷⁾ 따라서 예술이 무의식 세계 속에 자연을 통해 얻어진 체험과 그로부터 생성된 다양한 고유의 스토리를 함축적으로 담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포되어진 고유의 의식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 예술을 이해하며 공감하고 동화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헤르베르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가 말한 “예술은 이론의 진리와는 달리, 나쁜 현실을 견뎌낼 수 있으며, 나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⁸⁾ 와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중 밤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면서 “달빛으로 채우고 빈 배로 돌아온다.” 라고 읊조린 것은 예(藝)로 마음의 허(虛)를 채워 시름을 견뎌내는⁹⁾ 위안과 치유의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감과 감정의 동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예술의 가장 큰 힘이다. 또한 무의식 속의 감정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공감과 동화는 정서적 위안과 감성의 치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현대예술의 새로운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6)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164.

7)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165.

8) 마르쿠제, <<미학과 문화>>, 범문사, 1982, p48.

9)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125.

2. 꽃에 대한 고찰

1) 일반적 고찰

인류의 오랜 역사와 문화, 예술, 삶 가운데에 꽃은 늘 인간과 함께해왔으며, 고대부터 현대까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소재 중 대표적인 하나로 그 형상을 비롯하여 생태학적 특징들은 인간의 삶과 비유되어 각각의 의미를 내포하며 존재해왔다. 인간은 특정 경험이나 기억을 꽃을 통하여 회상하거나 그 생태학적 특징을 삶의 회로애락과 결부시키며 소소한 의미들을 부여하고 교감하였으며, 시대와 문화, 인간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함축적으로 다양하게 부여된 의미들은 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실과도 같은 가치를 지녔다.

이러한 꽃은 예술가들에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형예술의 훌륭한 소재가 되어왔다. 꽃은 무한한 아름다움에 비해 그것이 지닌 유한한 생명력으로 한시적 아름다움에 대한 허망함과 아쉬움이 늘 공존하는 생물이다. 이에 인간은 그 아름다움을 곁에 두고 무한히 향유하기 위해 꽃을 예술 속 소재로 끌어들이며 다양하게 표현해왔다.

예술에서의 꽃은 탄생, 성장, 죽음, 소멸의 순환을 하는 생명체로서 무상하면서도 아름다운 자연계의 모든 생명을 대변하여 상징되었다. 꽃이 내포하고 있는 생명감, 그 자체의 질서와 외면적 형과 색은 예술적 표현이 될 수 있는 미적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으며 그 상징적 의미는 자신의 의식세계를 표현하는 소재로 적합하다.¹⁰⁾ 그로인해 꽃은 오랜 역사 속, 인류의 삶 속에

10) 벤자민로울랜드. <<동서미술론>>, 최민 역, 1982, p172.

녹아있는 다양한 감정과 정서를 대변하기에 알맞은 상징물로써 존재해왔다.

2) 역사적 고찰

꽃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소재 중 하나로 회자되며 삶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녹아들게 되었다.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삶의 모든 경조사는 꽃으로 장식되었고 사랑, 기쁨, 슬픔 등을 나눌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감정의 매개체가 되어왔으며, 예술적 표현에 있어 형태, 색상, 무늬, 생물학적 특성들은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며 인간의 미적 감성을 충족시켜 주었다.

인간은 다양한 전설, 외형이 전달하는 이미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관념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꽃에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부여된 의미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1474년(성종 5) 강희안(姜希顔)이 쓴 원에서 <양화소록(養花小錄)>에 의하면 꽃을 화품과 화색에 따라 분류해 놓은 화목구등품제(花木九等品第)가 있어 꽃의 등급을 정해놓았음을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뜰 안에 심어 놓은 꽃을 보고 주인의 인품을 짐작했다는 기준들도 전해진다.

또한 꽃은 글자 자체로 의미를 지니며 다른 글자와 결합하여 본래의 의미에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중시켜 표현 할 수 있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 대표적 대명사로 ‘꽃 화(花)’ 자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날아갈 듯 화사한 미인의 자태를 ‘화월용태(花月容態)’ 라 하였고, 꽃 같이 아름다운 얼굴은 ‘화안(花顔)’, 아름다운 족두리는 ‘화관(花冠)’ 라 일컬어왔다.¹¹⁾

11)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S, 1999, p21.

꽃의 상징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을 형용하거나 나아가 더욱 추상화하여 영예로움과 고상함, 그리고 그것의 진수를 표상하기에 이른다. 서경적인 미에서부터 번영과 풍요, 존경과 기원의 매개물, 사랑, 미인, 재생 등 더 높은 미적 존재로의 의미 확산이 이루어졌다.¹²⁾

동양에서 꽃은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는 인간의 성품을 대변하며 내면적·정신적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 대표적 예로는 문인화가들에 의해 자주 그려지던 화목인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가 있는데, 이는 그가 가진 계절적, 생물학적 특징을 군자의 인품에 비유하여 ‘四君子’라 일컫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 사람들은 월마다 그 달에 피는 대표적 꽃과 그 의미들을 열거하여 책으로 엮은 화개월령(花開月令)¹³⁾이란 것을 통해 월별로 제때 피어나는 꽃과 그 의미를 바탕으로 정원 주인의 보살핌에 따라 꽃의 성품이 순해져 꽃의 참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였으며 꽃의 종류를 통해 그것을 가꾸는 사람의 인품 또한 짐작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월	꽃	의미
정월	매화(梅)	고우(故友), 기우(奇友). 선비의 깨끗한 기풍을 나타낸다. 매화가 꽃이 피어 봄소식을 전하므로 춘선(春先)이라고 하기도 한다. 매화나무 가지에는 곧잘 까치가 앉아있는 그림을 볼 수 있다. 이런 그림은 ‘봄을 맞아 맨 먼저 기쁜소식을 전한다(喜報春先)’는 뜻으로 해석된다.
	동백 두견화(杜鵑花)	선우(仙友) 시우(時友)
이월	홍벽도(紅碧挑)	

12)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넥서스BOOKS, 1999, p23.

13) 양화소록(養花小錄) 부록 화암수록(花菴隨錄) 中 일부

	<p>춘백(春栢) 산수유(山茶萸)</p>	
삼월	<p>두견화 앵두(櫻) 살구(杏) 복숭아(桃)</p> <p>배(梨) 능금(林檎) 사과(沙果) 사계화</p> <p>해당(海棠) 정향(庭香)</p>	<p>염우(艷友) 요우(夭友). 도화(桃花)는 벽사(辟邪)의 부적이며 아름답고 젊은 여인을 상징한다. 복숭아는 결혼, 봄, 불멸, 장수 등을 상징하며, 선가(仙家)에서 말하는 천상에 있다는 천도(天桃)는 장수불로(長壽不老)를 뜻한다. 무가(巫家)에서는 축귀, 유가(儒家)에서는 저승을 상징한다고 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p> <p>아우(雅友), 순수, 정의, 장수, 현명하고 어진정치를 상징.</p> <p>운우(韻友). 무릇 꽃이 한 해에 두 번 피지 못하거늘 이 꽃은 사계절을 두고 홀로 찬란히 피어 꽃다운 뜻이 조금도 가지지 않으니 지성스럽고 순결한 성인의 덕에 비할 만하고 또 오행으로 말하면 토왕(土旺)이 사계절에 들어있는 것과 같다. 꽃가꿈을 배우는 사람은 먼저 이 꽃을 길러야 하니 이 꽃은 참으로 꽃의 지남(指南)이라 하겠다.</p> <p>유우(幽友)</p>
사월	<p>벚꽃(櫻花)</p> <p>월계(月桂) 산단(山丹) 왜홍(倭紅) 모란(牡丹)</p> <p>장미(薔薇) 작약(芍藥) 철쭉 상해당(常海棠)</p>	<p>여성미를 나타낸다.</p> <p>세우(勢友) 부귀를 상징한다. 바위는 '수(壽)'를 의미하므로 또한 바위와 모란꽃을 같이 그린 그림은 '부귀수(富貴壽)'를 의미한다.</p> <p>가우(佳友) 귀우(貴友), 화상(花相)</p>
오월	<p>목련(木蓮)</p>	<p>담우(談友). 여성이 지닌 아름다움과 매력을 의미한다. 일명</p>

	<p>서향화(瑞香花) 해류(海榴) 위성류(渭城柳)</p>	<p>목필화(木筆花)이다. 그래서 바위 옆에 핀 목련은, 반드시 ‘필(必)’과 바위를 의미하는 ‘수(壽)’가 합해져 “꼭 장수(長壽)하리라[필득기수(必得其壽)]”는 뜻이 된다. 또 옥란화(玉蘭花)라고도 한다.</p> <p>수우(殊友) 정우(情友)</p>
유월	<p>석류(石榴) 석죽(石竹) 규화(葵花) 연화(蓮花) 목근(木槿)</p>	<p>교우(嬌友). 자손번식을 상징한다. 석류알이 많이 들어있는 모양은 자손번식과 다손(多孫)을 상징하고, 꽃봉오리는 사내 아이의 고추를 닮았다고 하여 다남(多男)을 의미한다.</p> <p>방우(芳友). 석죽은 패랭이꽃이므로 죽석(竹石)과 같이 오래 삶을 축수(祝壽)하는 뜻을 지닌다.</p> <p>정우(淨友). 창조력과 고난 속에 피어난 순수, 여인, 천재등을 나타낸다. 진흙 속에서도 때묻지 않은 깨끗함 때문에 깨끗한 선비정신을 의미한다.</p> <p>연밥은 다손과 풍작을 상징한다. 또 연밥에 떨어진 작은 구멍들 속에는 재물이 가득 차 있다고 보아 풍족한 삶과 편안하게 사는 모습을 상징한다.</p>
칠월	<p>백일홍(百日紅) 옥잠화(玉簪花) 금전화(金錢花) 치자(梔子)</p>	<p>한우(寒友)</p> <p>선우(禪友). 열매의 끝이 입을 다문 모습과 같다고 하여 입이 무거운 신중함을 나타낸다.</p>
팔월	<p>백일홍(百日紅) 전추라(剪秋羅) 금전화(金錢花) 파초(芭蕉)</p>	<p>속우(俗友)</p> <p>양우(仰友). 파초의 푸르름 속에서 군자의 기상을 찾았으며, 많은 책, 그림들에서 파초를 상당히 격조 높게 취급했음을 볼 수 있다.</p>

구월	당아욱 승금화(勝金花)	
시월	국화	일우(逸友)·소주황(蘇州黃)·금원황(禁苑黃)·취양비(醉楊妃)·삼색학령(三色鶴翎).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속세를 떠나 고고하게 살고 있는 은사(隱士)에 비유되었으며 군자의 기상을 상징하는 사군자의 하나이다. 중양화(重陽畫)·자양화(紫陽花)
십일월	학령(鶴翎) 소설백(笑雪白)	
십이월	매화(梅花) 동백(冬柏) 양귀비(楊貴妃) 감(柑)	연약하나 꽃이 아름다워서 요염한 미인을 상징한다. 칠절(七絶)

<표 1 > 월별 꽃과 그 의미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p143)

조선시대 회화작품에서 소재로서의 꽃은 다양한 의미와 사회·문화적 상징을 내포하며 해석되어진 자연으로 표현되었으며, 인간의 정서와 사상 등을 반영하며 등장하였다. 꽃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작품 속의 꽃은 자연의 단순한 모방이 아닌, 민족의 시대상과 사상, 감정 등을 투영하여 그들의 염원을 담아 길상적(吉祥的), 벽사적(辟邪的), 교화적(教化的) 상징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아 재해석 되어왔다. 이러한 상징적 측면은 종교적 색채와 융화되어 예술에 다양하게 등장하며 인간과의 밀접한 정신적 공감을 이끌기도 하였다.

종교적 의미를 내포한 것에는 연화와 보상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연꽃은 옛날부터 생명의 창조, 번영의 상징으로 애호되었는데 그 이유는 연꽃의 강한 생명력 때문이었다.¹⁴⁾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는 “연꽃은 생명

력이 강하여 가히 영구적이다. 연밭은 생명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며 뿌리에서 트는 싹은 끊임없이 자라나 그 조화가 쉬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여 연꽃의 생명력이 끊임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청결, 순결의 상징물로 여겼는데 그것은 늪이나 연못에서 자라지만 오니(汚泥)에 물들지 않는 속성에 기인하고 있다.

또한 연꽃은 환생(還生)을 상징한다. 우리 판소리 심청가에서는 심청이 인당수에 빠졌다가 큰 연꽃 속에서 환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러운 흙에서 자라지만 물들지 않는다’ 는 연꽃의 속성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도 군자의 청빈과 고고함에 비유되곤 하였다.¹⁵⁾ 군방보(群芳譜)¹⁶⁾에서는 “모든 식물들은 꽃을 피운 뒤 열매를 맺으나 오직 연꽃만은 꽃과 열매가 함께 나란히 생겨난다” 라 하였는데, 연꽃의 이러한 특징은 연생(連生), 곧 ‘연이어 자손을 얻는다’ 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¹⁷⁾

보상화는 연꽃의 변형으로 창조되어진 상상 속의 꽃이다. 보상화는 천상계를 상징하여 나타나므로 천화(天花)인 것이다. 성인이 득도를 하였을 때나 천계에서 내려올 때, 또는 천계로 다시 올라갈 때 여러 모양의 천화가 흩날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¹⁸⁾ 이를 통하여 인간은 꽃의 생태학적, 환경적 특징을 바탕으로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상상 속의 꽃을 창조하여 종교적 기원과 소망을 담아 그 상징을 극대화 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접할 수 있는 대부분의 꽃에 고유한 특성을 토대로 그들의 삶과 적합한 비유를 담아 인간의 정신세계를 대변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자

14)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p168.

15)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p168.

16) 왕상진 저, 중국 명대(明代) 621년 가장 오래된 꽃에 대한 백과사전.

17)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p169.

18)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04, p172.

연물로서가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존재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의식의 배경을 토대로 인간은 꽃을 꽃 이상의 존재로 여기며 생활공간 내에 의미부여 및 감정의 동화를 이루었다.

또한 과거 예술에서의 꽃의 표현은 자연을 품으며 늘 곁에 두고 접하던 친밀감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우리민족의 애정과 애환이 집약적으로 담겨있었다. 따라서 인간의 다양한 지혜와 당시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한 꽃의 의미는 문헌 속 자료로 남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거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일부가 되어준다. 이로써 현대예술에서의 꽃은 남겨진 전통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전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전통은 과거존재로 끝나는 유산에서 멈춰선 안되며 현재의 무수한 상대성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하여 오늘뿐 아닌 내일로의 표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¹⁹⁾ 역사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꽃에 부여한 의미와 상징이 일정시대의 미의식을 보여주는 표준지표의 역할을 하듯, 현대의 우리는 역사를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표준지표를 형성해 나가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역사는 단순한 시간의 경과가 아니며, 문화의 변질과정이므로 현대는 현대로서의 존재이유를 가져야 한다. 화훼(花卉)를 소재로 한 예술은 현대의 화훼여야 하며, 그것은 조선시대의 것이 아니어야 하는 것이다.²⁰⁾ 현대예술의 소재로서 꽃은 기존의 정통회화나 민화, 여러 문양들의 틀을 바탕으로 현대적 미의식과 새로운 기능을 가감(加減)없이 담아내어 현대인들에게 자유로운 공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꽃은 현대에 들어서 작가가 부여한 감각의 아이덴티티, 생명력, 에너지와 더불어 온 우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며 독창적이고

19) 오광수, <시대와 한국미술> 미진사, 2007, p38.

20) 오광수, <시대와 한국미술> 미진사, 2007, p38.

획기적인 표현방식으로 탄생할 수 있으며, 사회의 의식구조가 정해놓은 통상적 의미들을 뛰어넘어 작가의 의도 가운데 관람자가 개입되어 개인 고유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내면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3. 단순, 절제의 美

예술에 있어서 형태는 단순한 사물의 모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습되어 형성되어진 심상들이 형상화 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조형행위의 본질은 내면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미지를 우리가 지각할 수 있도록 실제의 공간상에 존재하게 하는 표현 행위이다. 따라서 미술 표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과 미술의 관계 속에서 예술가 자신이 통찰하고 경험한 그의 지성, 직관, 감각 등을 통하여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²¹⁾

이는 시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것과 상통한다. 시는 감정을 함축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절제된 공간에 정신적 깊이와 깊은 사유를 내포시킨다. 만약 시에 감정을 모두 쏟아낸다면 그것은 이미 시가 아닌 ‘고요한 사색’이라고 말할 수 있다.²²⁾ 인간은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시각적 형상을 떠올리며 내용이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를 연상하려한다. 이러한 연상작용은 그림 앞에서든 마찬가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 북송 때의 제1의 시인 소동파(蘇東坡)는 이를 두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고, 시 가운데 그림이 있다. (詩中有畫, 畫中有詩)”고 표현 한 것과 북송(北宋)의 화가 곽희(郭熙)는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그림은 소리없는 詩이고, 詩는 형태없는 그림이다”라고 말해 시화일체(詩畫一體)를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형성된 ‘시서화 일률론 (詩書畫一律論)’을 통해 오랜 역사 속 동양

21)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p361, p363.

22)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87.

의 문학과 예술에서 함축적 의미전달을 위한 절제가 중요한 표현요소였음을 알 수 있으며, 함축과 절제는 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외형에 치중하고 규모가 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은 정신성이 빈약하기 쉬운 데 가능성을 두고 있다. 함축된 의미가 부족하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기교와 꾸밈이 강조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문화에서 조선시대 문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

한국의 문화, 특히 조선 사대부와 왕실이 지향했던 절제와 품격, 자유분방함이 드러나는 문화·예술은 외형적으로 화려한 장식이 없고 스케일도 작으며 단출하다. 그러나 그것을 제작한 이의 마음속에 내재하는 무한하고 아득한 세계는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그 시대의 문학과 시대상들을 통해 잘 드러남을 알 수 있고²³⁾ 이러한 표현의 절제는 위에서 언급한 ‘시서화 일률론’ (詩書畫一律論)의 그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절제의 미감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느끼기 위한 눈을 열고 새로운 미적 질서를 경험하기 위하여 추상된 미적 본질에 접근하기 위함이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그 안에 암유되어진 의미로 일체감을 느끼고 나면 내면을 울리는 깊은 감동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이 일어날 때 예술은 보는 이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으며²⁴⁾ 이는 앞선 본문에서 언급한 예술이 가진 정서적 위안과 감성의 치유 기능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시점이 된다.

절제와 단순의 미감은 함축을 통한 여백의 미로도 설명할 수 있다. 함축을 통한 여백의 미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깊고 넓은 사유를 내포

23) 이은숙, <<우리정신. 우리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p115.

24) 한진숙,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민음사, 1996, p172.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동양예술 그리고 한국, 특히 조선의 미감을 통해 잘 드러난다. 특히 이는 한국의 회화에서 잘 드러나는데, 한국회화는 무한한 내면의 공간 즉 의미의 여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화면에 국한된 공간이 아니라 무한하게 확장되는 공간을 의미하며,²⁵⁾ 보이지 않는 넓고 깊은 정신적 세계를 암시하고 정신을 바탕으로 남겨진 표현의 여백은 오히려 가득 찬 것 보다 상위의 어떠한 것을 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담았다.

의미의 여백을 통한 내면의 공간은 그림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공간으로 만들어 감상자의 마음속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도록 한다. 이는 이성을 통한 논리로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관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둔 것이다. 그러므로 함축을 통한 표현의 여백 속에 작가의 내재된 조형의식이 놓여 질 때 관람자는 무한한 상상력과 함께 사물이 보여주는 물성을 넘어 정신적 차원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선의 백자도 마찬가지이다. 백자의 은은한 백색은 한국인의 감성에 가장 친숙한 색으로서 단순한 색채가 아닌 한국인에게 있어 하나의 정감의 체계일 수 있다. 이는 미술의 배경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닿아있는 문제이다.²⁶⁾ 또한 백색은 모든 색채의 억제인 동시에 모든 색채 전체의 표현을 함축한 색이기도 하다.

백자는 비어있는 무한한 공간을 상징하며 함축의 여백의 미감과도 의미를 함께한다. 역사를 바탕으로 백자는 역사상 가장 화려하다고 볼 수 있는 고려시대 청자가 발생된 후 제작된 자기이다. 조선 도공들은 화려함의 극치인 장식과 색감을 모두 비워내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무한한 함축적 공

25) 한진숙, <<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민음사, 1996, p115.

26) 오광수, <<시대와 한국미술>>, 미진사, 2009, p99.

간을 부여하였다.

기교는 물론 완벽한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는 조선의 자기가 관람자의 내면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은 비워내고 남겨진 무한한 여백에 의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가치란 전적으로 내면의 세계에서 비롯되며 조선의 비워냄의 미학은 마음의 세계와 내면성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 가치를 지닌 것²⁷⁾이다.

27)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p55.

참고도판



<도1> 덕흥리 벽화무덤 연꽃공양도
: 408년경, 작자미상



<도2> 수덕사 대웅전벽화 야생화도
: 고려14세기, 작자미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3> 초충도: 어송이와 개구리
: 조선시대, 신사임당



<도4> 불이선란
: 조선후기, 김정희



<도5> 석류도
:제작연도미상, 작자미상
홍익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6> 화접도
:제작연도미상, 편우령화첩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7> 건물 꼭대기의 꽃무늬 장식
- 세 개의 클로버 문양
: 제작연도 미상, 작자미상
클뤼니 중세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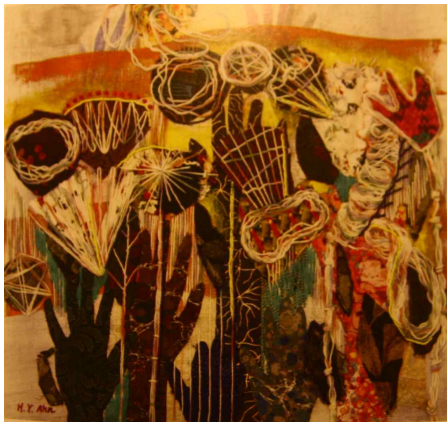
<도8> 꽃과 나비
: 1984, 김호득



<도9> 꽃
: 1984, 김호득



<도10> Flower-7
: 2011, 박지민



<도11> 6월의 정원
: 안혜영



<도12> 인도 꽃
: 2012, 임하나

4. 연구작품

1) 제작의도

한국의 역사 속에 자연은 안위(安危)와 포용(包容)의 존재였으며, 그 안에서 꽃은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와 상징을 내포하며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해왔다. 사람들은 꽃의 형상과 심상을 기억 속 잔상(殘像)으로 남겨 꽃을 통해 위안과 기쁨을 나누고, 손수 가꾸며 정서를 함양하기도 하였다. 현대를 사는 이들에게 꽃은 전반적으로 사랑과 감사, 기쁨과 슬픔 등 감정 표현의 수단이며 예술가들에게는 개성을 투영시켜 자신을 대변하고 잠재적 본능을 발산하는 매개체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이렇듯 개개인의 기억 속 잔상으로 남아있는 어렴풋한 꽃의 형상과 스토리들을 본인만의 조형언어로 심상화 하여 표현하고자 의도하였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꽃 본연의 모습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내면과 외면을 자세히 관찰하고 개인의 경험과 기억에 의해 단순과 절제, 왜곡과 강조 등의 방식으로 핵심적 형상만을 쫓아 꽃의 이미지를 새롭게 표현하였다.

이미지를 형상화 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자는 본문 연구내용 고찰을 토대로 기교는 멀리하고 넉넉함과 너그러움, 깊이 있는 함축의 형태를 추구하는 조선시대의 기질과 성향을 바탕으로 두었다. 이는 불특정 다수 개개인의 어렴풋한 기억을 함축적으로 내포시켜 관람자로 하여금 어렴풋한 잔상을 무한히 떠올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 그로인한 마음의 동화가 일 수 있기를 의도한 것이며, 공감으로부터 기대될 수 있는 감성의 위안을 유도하고자 한다.

연구작품에 등장하는 꽃은 인간에게 의미 있게 각인된 국화, 도화, 매화,

벚꽃, 모란, 목련, 연꽃, 장미, 양귀비꽃을 소재로 하였다. 꽃은 본연의 모습이 아닌 꽃을 구성하고 있는 꽃술, 꽃잎, 꽃받침, 줄기, 잎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연구자의 학습되어진 조형의식에 의해 부분 강조하고 부분 절제하여 재구성하였다. 부분적으로 등장하는 '나비' 역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더듬이, 날개, 몸통만으로 조합되어 꽃과 조화를 이루며, 이는 제작되어진 꽃이 생명력을 지녔음을 강조하기 위한 우회적 표현이다.

2) 제작과정

① 원형, 간틀 및 기형 제작

원형은 아이소핑크를 열선 커터기를 이용해 높낮이를 달리하여 커팅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열선커터기를 이용한 커팅은 정형화되고 불가변성을 지닌 석고 제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열선의 흐름에 의해 자연스러움을 의도할 수 있었다. 이는 예술의 중요한 요소인 즉흥으로 수용하며 정형화 된 형(形)을 통해 긴장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기형제작은 대량제작이 가능한 석고캐스팅으로 이루어 졌으며 간틀을 이용한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one mold one form 형식인 석고캐스팅 기법의 제한성을 탈피하고자 한 개의 base mold에 다양한 간틀을 조립하여 캐스팅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작품은 서로 다른 이미지를 지닌 12*12*7(cm), 15*15*7(cm)의 원형을 제작하고 base mold와 각각의 원형에 따른 간틀을 제작하여 드레인 캐스팅(drain casting)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두께 7cm는 최대치의 두께를 의미하며

각각의 원형두께는 캐스팅될 것을 감안하여 3cm~ 6cm의 분포로 높낮이의 다양성을 주어 제작되어졌다.)

A. 원형 제작 (사진1~사진4 참고)

- a. 원형의 기본이 될 아이소핑크를 12*12*7(cm), 15*15*7(cm)로 열선커터기를 이용해 정확한 육면체로 컷팅한다.
- b. 컷팅 된 아이소핑크 블록에 컷팅할 부분의 밑그림을 컷팅 영역별로 그린다.
- c. 열선커터기를 이용하여 각 컷팅 영역들을 모두 90° 컷팅한다.
- d. 컷팅 후 날개가 된 영역들의 블록을 높낮이와 각도를 변화시켜 재컷팅한다.
- e. 높낮이를 변화시켜 컷팅 된 블록을 밑그림에 맞게 재조합하여 고정시킨다.

B. base mold 제작 < 12*12*7(cm)를 기준>, (사진8~사진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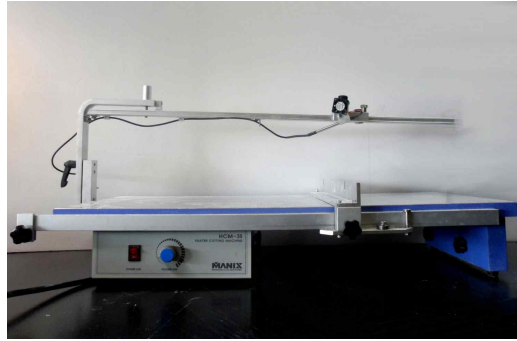
- a. 12*12*7(cm)를 원형으로 하는 육면체 용 석고틀을 제작한다.
 - base mold는 육면체 기물 캐스팅의 수축방향과 입자의 구조 등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총 여섯 쪽으로 제작하였다.
- b. 드레인캐스팅 시 원활한 배출을 위해 직육면체의 가운데 부분에 4cm의 주입구를 제작한다.
- c. 석고틀은 조합된 상태에서 건조시킨다.
- d. 15*15*7(cm)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작한다.

D. 간틀제작 < 12*12*7(cm)를 기준>, (사진5~사진7 참고)

- a. 12*12*7(cm) 원형에 15*3*7(cm)의 외벽을 제작한다.
- b. 석고를 부어 굳힌 후 원형 아이소 핑크를 떼어낸다.
- c. 간틀이 건조되기 전 캐스팅 時 탈형이 용이하도록 조각도를 이용하여 모든 면에 각도를 주어 다듬는다.
- d. 석고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E. 드레인캐스팅을 이용한 도벽제작 (사진10~사진1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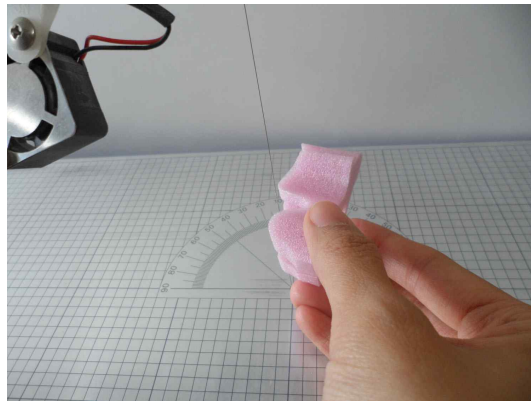
- a. Base mold에 간틀을 조합시킨다.
- b. 석고틀을 모두 고정시킨 후 슬립을 주입한다.
- c. 약 15분 후 슬립을 배출해 준다.
- d. 기물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약 90분정도 후 탈형, 충분히 건조시킨다.



<사진1> 열선커터기



<사진2> 원형제작-1



<사진3> 원형제작-2



<사진4> 열선커터기를 이용한 원형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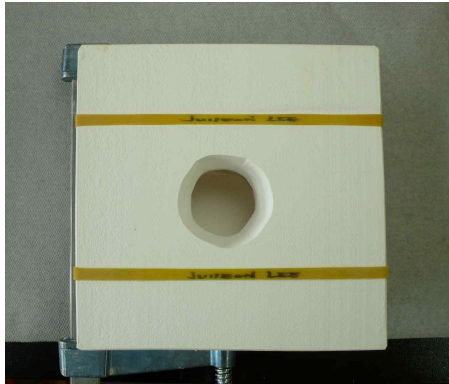
<사진5> 원형을 이용한 간틀제작-1



<사진6> 원형을 이용한 간틀제작-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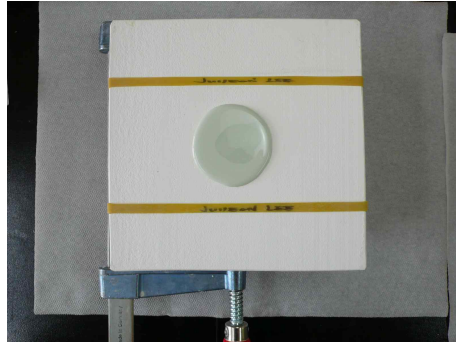
<사진7> 원형을 이용한 간틀제작 -3



<사진8> base mold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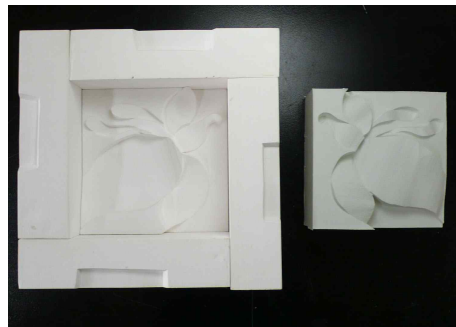
<사진9> base mold와 간틀 조합



<사진10> 슬립 주입



<사진11> 슬립 배출 시 공기주입



<사진12> 탈형 및 건조

② 유약

본문의 연구내용에서 투명유와 백매트유, 투명유에 산화코발트 안료를 조합한 cobalt(1) 그리고 cobalt(1)에 고화도 블랙안료를 조합한 cobalt(2) 총 4가지 유약을 사용하였다. (투명유-현대소재 3000/ 백매트유-대원도재에서 제조된 기성유약 사용)

A. 코발트유 제작방법

- a. 투명유와 영국산 코발트 안료, 고화도 블랙안료를 실험을 통한 비율로 조합하였으며 조합비율은 다음과 같다.

원료명	유약	투명유	cobalt(1)	cobalt(2)
나트륨장석 (부여)	$\text{Na}_2\text{O} \cdot \text{Al}_2\text{O}_3 \cdot 6\text{SiO}_2$	49.4	49.4	49.4
규석(부여)	SiO_2	9.4	9.4	9.4
석회석(금산)	CaCO_3	20.0	20.0	20.0
카올린 (인도네시아)	$\text{Al}_2\text{O}_3 \cdot 2\text{SiO}_2 \cdot 2\text{H}_2\text{O}$	8.5	8.5	8.5
탄산바륨 (중국)	BaCO_3	8.7	8.7	8.7
아연화	ZnO	4.0	4.0	4.0
산화코발트	Co_3O_4		1.4	4.0
블랙 고화도안료			0.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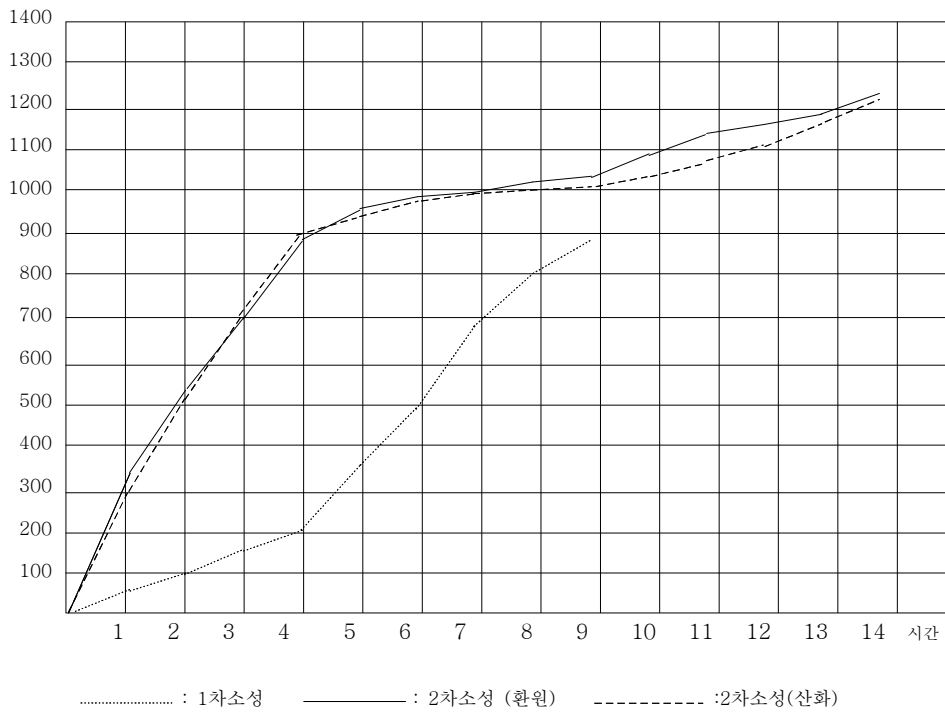
<표 2> 유약 조합비 (%)

③ 소성

유약	구분	소성구분		1차소성온도	2차소성온도	소성시간	
		산화	환원			1차	2차
투명유		산화	환원	870 °C	1240-1250 °C	8시간	14시간
백매트유							
medium cobalt 유	환원						
dark cobalt 유							

<표 3> 소성방법

온도 °C



<표 4> 소성온도

1차 소성은 400°C~500°C까지 온도를 서서히 높인 후 9시간동안 870°C로 소성하였으며, 2차 소성(산화.환원)은 기물의 형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1240°C~1250°C까지 14시간에 걸쳐 천천히 소성하였다.

3) 작품

작품구성은 설렘, 화사(花絲), 반가운 손님, 스스로 그러하다(自然)의 소주제에 맞게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각각이 지닐 수 있는 고유의 의미와 관람자가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과거에 그러하였듯, 새롭게 해석 된 꽃의 형상에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여 그들만의 사유 언어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지닌 공간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작품 1] Ludens 01 : 설렘



투명유, 1250°C, 환원소성 240 * 240 * 35 (mm)

꽃봉오리는 만개(滿開)의 시작이며 새로운 생성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망울만 맺히고 아직 틔우지 않은 꽃봉오리는 ‘희망에 가득차고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세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탐스럽게 솟아오른 꽃봉오리의 형상을 설레는 마음으로 심상화하여 표현하였다.

[작품 2] Ludens 02 : 화사(花絲)-1



투명유, 1250°C, 환원소성 240 * 240 * 35 (mm)

[작품 3] Ludens 03 : 화사(花絲)-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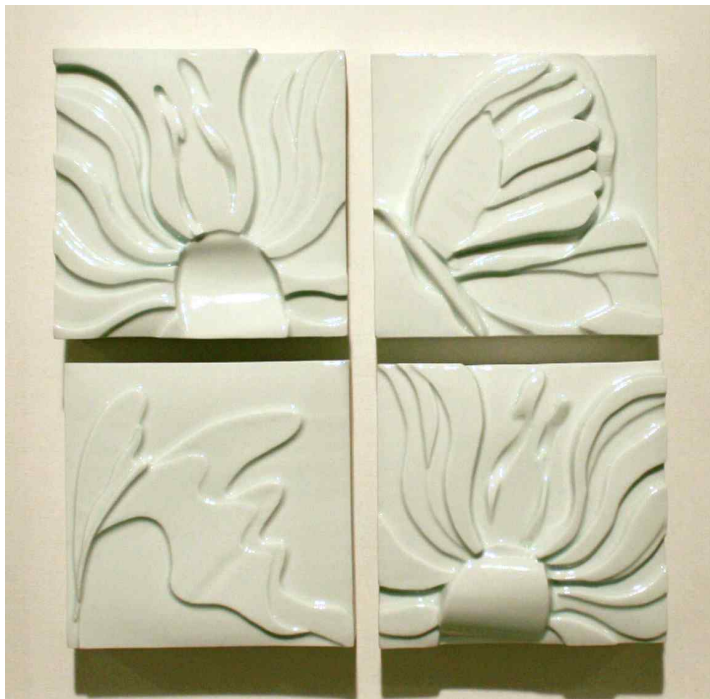


백메트유, 1250°C, 환원소성 240 * 240 * 35 (mm)

[작품2. 작품3]

활짝 티워진 꽃술은 달콤한 꿀과 매혹적인 향기를 발산하며 나비가 날아들길 고대한다. 암과 수로 나뉜 꽃술은 자연의 섭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듯 존재하며 이는 인간의 사랑과도 흡사하다. 본 연구자는 꽃술의 형태를 사랑의 의미를 담아 심상화하여 나란히 조화를 이루도록 확대표현 하였으며 향긋함에 이끌려 다가온 나비의 모습을 함께 구성하여 꽃이 뿜어내는 향기와 생명력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4] Ludens 04 : 반가운 손님-1



투명유, 1250°C, 환원소성 280 * 280 * 35 (mm)

[작품 5] Ludens 05 : 반가운 손님-2



투명유, 1250°C, 산화소성 420 * 420 * 35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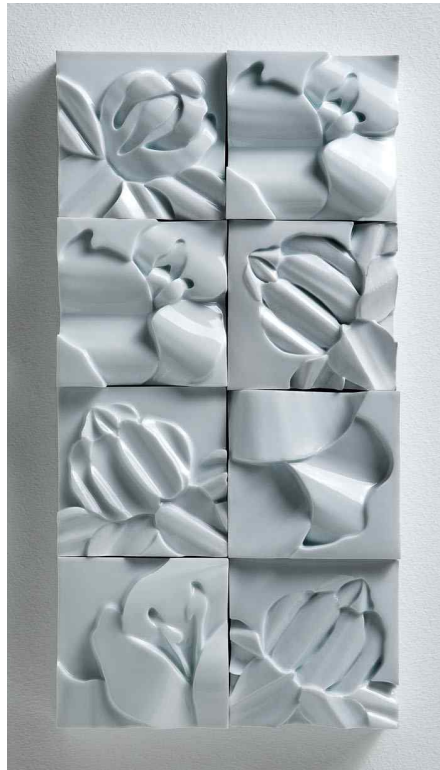
[작품4. 작품5]

자연의 섭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틈워진 꽃은 달콤한 꿀과 향기로 나비를 유혹한다. 자연에 다가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향기에 이끌려 꽃에 다가온 나비가 살포시 내려앉았을 때 꽃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하늘거리며 춤춘다. 꽃에게 나비는 향기를 발산하는 이유이며 삶에 있어 가장 반가운 손님일지 모른다.

작품은 춤추듯 살랑이는 꽃과 나비의 형상을 단계적으로 높낮이를 주어 제작하였다.

[Ludens_group 06-09]

[작품 6] Ludens 06 : 스스로 그리하다-1



투명유, 1250°C, 환원소성
240 * 480 * 35 (mm)

[작품 7] Ludens 07 : 스스로 그리하다-2



투명유, 1250°C, 환원소성
240 * 480 * 35 (mm)

[Ludens_group 06-09]

[작품6. 작품7]

티워진 봉오리는 피어나 삶의 한 때를 화려히 장식하고 피어났던 꽃은 사라져 잎만 남긴다. 자연의 힘으로 최선을 다 해 피어나고 미련 없이 다음을 준비하는 꽃의 일상을 하나의 조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작품 8] Ludens 08 : 스스로 그리하다-3



투명유, 1250°C, 산화소성 360 * 360 * 40 (mm)

[작품 9] Ludens 09 : 스스로 그리하다-4



투명유, 1250°C, 산화소성 480 * 1200 * 50 (mm)

[작품 10] Ludens 10 : 스스로 그리하다 cobalt-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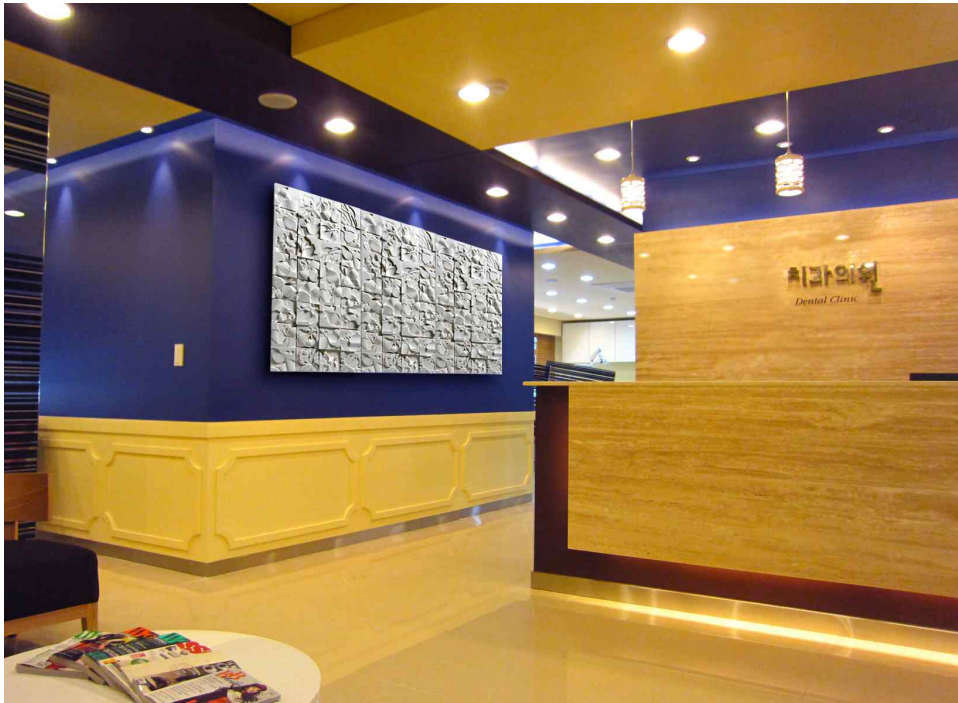
cobalt(1), (2), 1250°C, 환원소성 420 * 420 * 50 (mm)

[Ludens_group 06-10]

[작품8, 작품9, 작품10]

자연을 고요히 느끼며, 설렘과 희망으로 생성된 여린 꽃봉오리가 힘있게 터
워지며 만개를 이루고 또 다시 무심한 듯 소멸되는 꽃의 잔상들을 마음속으
로 들여놓는다. 자연(꽃)은 언제나 스스로 존재하고 소멸과 생성을 반복한
다. 그 소멸과 생성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아낌없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싶
다. 그룹으로 구분한 [작품6]~[작품10]는 기억 속 잔상들을 좇아 심상화 한
꽃의 형상을 나비, 잎과 함께 구성하여 다양하게 크기와 구성으로 조합시킨
작품이다.

[예상시안]



<사진13> 병원 내부 가상설치 시안

자연(꽃)에 담을 수 있는 고유의 스토리를 통한 정서적 교감과 그로인한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병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배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의료시설 내 환자대기실 공간 배치를 예상하는 시안을 제작하여 심미성과 더불어 육체적·정신적 치유와 위안의 가능성을 기대해보았다.

III 결 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 등장한 치유의 열풍은 물질적 풍요로움 이면에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과 감정의 갈등을 자연을 통한 심적 안정으로 위안하고자 함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과거 우리 내 삶을 일부분 되새김질 해보고자 하는 욕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은 환경을 개선하기는 쉬워도 전과 같이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주거공간의 새로운 창출보다 현 환경을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시켜 자연과 동화되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 동일화 된 아파트 주거공간에 조화를 이루어 정서적 치유의 공간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연구하였다. 이로써 일률적인 주거공간 구성을 예술품을 통해 변화시켜 현대인들의 심적 갈등을 희석시키고 정서적 안목향상을 기대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꽃)을 이용하여 도제 벽장식 제작을 통한 환경개선을 도모
2. 인간의 조형의식 가운데 꽃에 대한 심리적 요소들을 이용하여 조형작업의 가능성 조망
3. 문헌을 통하여 조상들이 꽃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지혜와 다양성 고찰
4. 전통에서 현재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한 단순·절제의 미학이 인간의 정서상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
5. 정형화 된 석고제형 양식에 간틀 작업을 이용한 유희적 접근 시도
6. 설치대상 확장 예상을 통한 새로운 조형설치의 가능성 조망

연구결과를 통하여 현대미술의 다양하고 분화된 양상은 새로운 가능성을 낳는 기폭제가 되는 한편 가능성의 극대화를 위한 한국 고유의 미적 안목과 정서를 감안한 미술활동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기질을 바탕으로 한 현대인의 환경개선을 통해 정서적 위안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도자기의 재료적 물성이 갖는 한계 극복의 필요성과 작품의 형태와 크기, 높이 구성의 다양성 등이 개선점으로 생각되며,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작업에서 다양한 소지실험과 형태적 연구로 공간조화의 효과적 가능성을 조망할 것을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기, <한국미의 이해>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2
-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백자> 돌베개, 2002
- 안휘준·이광표, <한국미술의 미> 효형출판, 2008
- 오광수, <추상미술의 이해> 일지사, 2003
- 오광수, <시대와 한국미술> 미진사, 2007
- 임영주, <한국의 전통문양> 대원사, 2011
- 이광명, <예술에 대한 사색> 학연문화사, 2006
- 이기영, <민화에 홀리다> 효형출판, 2010
- 이상희, <꽃으로 보는 한국문화> 벵서스BOOKS, 1999
- 이은숙, <우리 정신, 우리 디자인> 안그라픽스, 2009
- 이주영, <미학특강> 미술문화, 2011
- 한영대, <조선미의 탐구자들> 학고재, 1997
- 허 균, <궁궐장식> 돌베개, 2011
- 홍사중, <아름다움을 보는 눈> 아트북스, 2006
- 요한 하위징아, <호모루덴스> 연암서가, 2010
- 김미희, 「꽃을 통한 감상 이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2004
- 김정석, 「실내공간의 확장과 다면화를 위한 유리조형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10
- 김지선 「한국 전통 꽃문양의 상징성과 형태 및 색채특성에 따른 조형성」,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2007

ABSTRACT

The Porcelain Wall Decorations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Shape of the Flowers

LEE, JU YEON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sidential facilities are a major resting space and a sanctuary for people which fulfill one of the basic desires of human beings. People spend, statistically, more than 30% of waking hours in the house, which may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the formation of personal character and mental/physical health of the constituent members.

At the onset of industrialization, many Koreans have accepted the apartment houses for their residence. They are multi-unit dwellings that are built based on function and rationality, and are commonly standardized and uncharacteristic. These characterless residential environments may have led to communicative restriction as well as emotional restriction, thus people gradually alienated themselves from the nature. Consequently, the modern people have gradually longed for, and emphasized its importance of the nature while paying attention to such various activities as cultural art and leisure activities in the nature. Furthermore, the society has shown a high interest in 'healing' through nature.

The 'healing' is one of the great cultural phenomenon in Korea for the last decade, and various fields of modern art are playing important

role in healing therapy. And, the art, conjunction with indoor environment, has gained a new objective of emotional healing of the modern people'.

The objective, in this paper, is to conduct research by establishing a hypothesis that the art is given a new role of artistic healing at indoor environment in the residential space, which was previously mainly based on practicality.

In this research, porcelain murals were designed and produced, and the flower became the limited subject matter to express the basis of author's own refined formative thoughts. The flower was used as the subject matter because it has been used as the symbol for nature in variety of ways timelessly throughout the world.

Some typical expressions of flowers from old Korean paintings were reviewed from the literature and references, and attempts were made to embody the beauty of simplicity and moderation by introducing blank area into the work.

For the general shape of the mural work, a form of frames was selected for harmony with any limited living space. The mural pieces were fabricated by slip casting for multiple fabrication purpose, and 'one mold - multi form' fabrication was attempted using 'Between-Frame Techniqu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one mold - one form' fabrication. For the glaze, white and cobalt blue glazes were used under the intention of the author. And, a virtual installation at a medical facility was carried out its visual compatibility.

The works of this research paper mainly targeted the standardized apartment space with a priority to practicality.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mural work could be in harmony with an integrated residential environment or medical facilities in the future.

Thus, the ceramic mural work is proposed as an alternative hoping to purify the essential emotion of human beings from the copy-like characterless space.

